



정재원씨 강제징용 손해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헤이든법' 합헌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김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베리 피셔 변호사, 소송당사자 정씨. <이승관 기자>

징용 배상소송 잇따를듯

가주 항소법원 '손배특별법 합헌' 판결따라

2차대전중 강제징용됐던 정재원씨가 일본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다(현 다이헤이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15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54.6조'에 대한 합헌판결(본보 16일 보도)을 내림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북한당국이 이같은 소송에 큰 관심을 보이며 최근 참여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판결로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피해자들

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사를 왜곡해 온 일본정부 및 기업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항소법원 판결과 관련, 베리 피셔 변호사는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진행중인 다른 징용피해 관련 소송들이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유대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합의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기업들과 달리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정 반대편에서 있다"고 비난했다.

정씨측 변호인단은 곧 회의를 갖고 본재판 재개에 따른 피고측의 주대법원 항소 가능성 및 지연작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씨 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발굴 및 증거보완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는 한편 한인사회 및 인권단체, 국제 NGO 그룹들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핫라인: (213)387-1166.(정연진 정의회복위원회).

<황성락 기자>